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2009. 11. 17(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9. 10. 28

나. 발 의 자 : 박창규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09. 10. 28

라. 상정일자 : 2009. 11. 6(제1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중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에 891,990.4㎡ (266,802평)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4년 6월 까지 6,306세대 19,326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은 첫째, 인천대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낙후된 구도심지역을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민간자본 유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을 이유로 자본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나. 주요 활동방향

-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관련기관(부서) 추진사항 및 지역주민 여론(건의사항) 수렴
-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사례 벤치마킹
 - 개발초기부터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절차, 주민협의체 구성 등
-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안 강구 및 정책대안 제시
 - 개발방향, 개발방식, 기간, 일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인천대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낙후된 구도심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인프라 구축 및 상업, 업무, 문화, 주거의 복합기능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대책 요구와 보상문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의 강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혼선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구도심의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이상철, 강문기, 김소림 위원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른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함.

< 답 변 >

- 박창규 의원

인천대학이 이전하기 전에 지역주민도 동시에 보상을 해서 내보내면 지금같은 현실이 도래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인천대학은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는 송도로 이전하여 원활한 학사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반면 도화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행정의 손길이 전혀 뻗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소림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인천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06년 2월부터 추진하였으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에 891,990.4m² (266,802평)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4년 6월 까지 6,306세대 19,326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은 첫째, 인천대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낙후된 구도심지역을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민간자본 유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을 이유로 자본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5개월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구성인원 : 5인 이내
- 대상사업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붙임 :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개요」
- 활동방향
 -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관련기관(부서) 추진사항 및 지역주민 여론(건의사항) 수렴
 -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사례 벤치마킹
 - 개발초기부터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절차, 주민협의체 구성 등
 -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안 강구 및 정책대안 제시
 - 개발방향, 개발방식, 기간, 일정 등

4. 세부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

5.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 낙후된 구도심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구도심 활성화 도모
- ▶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 ▶ 상업, 업무, 문화, 주거의 복합기능 도시 조성

사업개요

- 사업방식 : 민자사업 (공사 19.9%)
-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규모 : 881,047㎡
- 사업기간 : 2007 ~ 2014
- 개발법적용 : 도시개발사업법
- 사업비 : 2조 6,188억원